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의 발달*

박 영 신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만 3세와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의 발달을 검토하였다. 실험 1에서는 도덕적 규칙을 위반한 행동 (친구에게 물뿌리기, 친구 머리카락당기기, 혼자만 그네타기, 친구 모자 훔치기)과 사회관습적 규칙을 위반한 행동 (책상 위에 올라가기, 선생님에게 인사 안하기, 이야기 시간에 돌아다니기, 손으로 밥먹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준 뒤, 위반행동의 허용성, 심각성, 일반성, 그리고 규칙의존성에 대해 판단하게 하였다. 실험 2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유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을 수정한 뒤 심각성, 일반성, 규칙의존성과 실험 1에 포함되지 않았던 권위의존성에 대해서 평가하게 하였다. 실험 1에서 유아들은 도덕적 위반행동이 사회관습적 위반행동보다 더 나쁘다고 보았다. 그러나 도덕적 위반행동과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이 모두 허용될 수 없고, 다른 상황에서 일어나서 안되며, 위반행동을 금지하는 규칙이 없더라도 나쁘다고 보았으며 이런 경향은 5세아들보다 3세아들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실험 2에서 유아들은 도덕적 위반행동이 사회관습적 위반행동보다 더 나쁘며 또 다른 상황에서 더 일어나서 안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반행동을 금지하는 규칙이나 권위의 존재에 관계없이 도덕적 위반행동과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이 모두 나쁘다고 보았다. 두 실험에서 우리나라 유아들은 위반행동의 심각성과 일반성의 두 준거에서만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을 구분하였고 이런 경향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이 밝혀졌다.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두가지 종류의 규칙이 있다. 하나는 도덕적 규칙(moral rules) 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관습적 규칙(social - conventional rules) 이다. 도덕적 규칙이란 정의, 공정함, 타인의 권리와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존

이 연구는 1998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유치원, 어린이집과 유아들 테스트에 애쓴 조 숙진, 이 은경, 강 선영과 함혜경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재하는 본질적인 규칙이고 사회관습적 규칙은 사회제도 내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균일하게 통제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진 임의적인 규칙이다 (Turiel, 1983).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된다,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된다는 것 등은 도덕적 규칙에 속하지만 사람을 부르는 방식, 옷을 입는 방식, 인사하는 방식 등은 사회관습적 규칙에 속한다.

사람들이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을 다르게 보는지가 여러 연구들에서 다양한 준거판

단 (criterion judgement) 을 통해 검토되었다. 주로 많이 사용된 준거들은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을 위반한 행동의 허용성 (permissibility), 심각성 (seriousness), 일반성 (generalizability), 규칙의존성 (rule contingency), 권위의존성 (authority contingency) 등이었다. 허용성이란 규칙을 위반한 행동을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심각성이란 규칙을 위반한 행동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한 판단이다. 일반성은 규칙을 위반한 행동이 다른 상황에서 일어나서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규칙의존성과 권위의존성은 행동에 대한 평가가 규칙이나 권위 (선생님, 부모 등)의 존재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즉 특정 행동을 금지하는 규칙이나 권위자가 없다면 위반행동이 괜찮은지에 대한 판단이다.

미국의 성인이나 초등학교 아동들은 이런 준거들에서 두 종류의 규칙을 다르게 보았다. 성인들과 아동들에게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을 위반한 행동에 대해 그림과 더불어 이야기를 들려준 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준거에서 위반행동들에 대해 평가하게 한 결과, 성인들이나 초등학교 이상의 아동들은 도덕적 위반행동이 사회관습적 위반행동보다 더 허용할 수 없고 (Tisak & Turiel, 1984), 더 나쁘며 (Nucci, 1981; Tisak & Turiel, 1988), 다른 상황에서 더 일어나서 안되며 (Nucci, Turiel, & Encarnacion-Gawrych, 1983), 규칙이 없더라도 더 나쁘며 (Nucci, 1981; Nucci, Turiel, & Encarnacion-Gawrych, 1983), 더 변경할 수 없다고 (Arsenio & Ford, 1985) 보았다.

한국의 초등학교 이상의 아동들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Song, Smetana와 Kim (1987)은 한국의 5세, 9세, 12세, 15세와 18세 남녀 아동들을 대상으로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를 위반행동의 허용성, 일반성과 규칙의존성의 세 준거에서 검토하였고 또 아동들에게 위반행동이 나쁜 이유를 설명하게 하였다. 모든 아동

들은 도덕적 위반행동이 사회관습적 위반행동보다 다른 상황에서 더 일어나서 안될 뿐 아니라 금지하는 규칙이 없어도 더 나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두 종류의 위반행동을 모두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도덕적 위반행동을 사회관습적 위반행동보다 더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모든 아동들은 도덕적 위반행동이 나쁜 이유를 의무, 정당성과 다른 사람의 복지라는 차원으로 설명하였고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이 나쁜 이유는 권위, 사회적 비동조성, 사회적 조정, 개인적 이유 등으로 설명하였다.

이 연구들은 한국과 미국의 성인들이나 초등학교 이상의 아동들은 도덕적 규칙들은 의무적인 것이며 권위, 규칙이나 사람들 사이의 동의에 관계없이 상황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본질적인 규칙으로 보지만 사회관습적 규칙은 사회적 상황이나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 달라지는 상대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구분은 정상 아동들뿐 아니라 친구들에게 거절당한 아동들과 (Sanderson & Siegel, 1988), 사람들에게 학대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아동들에서도 나타나서 (Smetana, Kelly, & Twentyman, 1984; Smetana, Toth, Cicchetti, Bruce, Kane, & Daddis, 1999)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한 구분은 아주 보편적인 현상임을 보여준다.

그러면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한 이해는 학령전기 유아들에서는 어떻게 발달할까? 처음으로 준거판단을 사용하여 유아들이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는지를 검토한 연구는 Smetana (1981)의 연구였다. 3세와 4세 유아들에게 다섯가지의 도덕적 자극(친구 때리기, 친구와 물건 나누지 않기, 친구밀기, 친구에게 물뿌리기, 친구의 사과 빼앗기)과 다섯가지의 사회관습적 자극(이야기 시간에 참여하지 않기, 이야기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앉지 않기, 간식 먹기전에 감사하다는 말 안하기, 소지품을 정해진 장소에 두지 않기)을 제시하고

그 행동의 심각성, 규칙의존성, 일반성과 벌을 받아야 하는 정도를 물어보았다. 유아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도덕적 위반행동이 사회관습적 위반행동보다 더 나쁘고, 더 벌을 받아야 하고, 규칙에 덜 의존한다고 보았다. 또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이 도덕적 위반행동보다 더 유치원 상황에 상대적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어린 유아들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령전기의 유아들도 두 종류의 규칙을 잘 구분하고 있으며 3세경이면 어떤 행동에 대한 평가가 그 행동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또한 유아들은 이야기로 들은 가설적인 위반행동이 아니라 실제 유치원에서 관찰한 도덕적 위반행동과 사회관습적 위반행동도 위반행동의 심각성, 벌을 받아야 하는 정도, 일반성, 그리고 권위와 규칙의존성의 준거에서 구분하였다 (Smetana, Schagman, & Adams, 1993).

또 다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규칙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준거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Smetana & Braeges, 1990). 26개월, 34개월, 42개월된 유아들을 대상으로 허용성, 심각성, 일반성, 규칙의존성, 권위위존성의 다섯 준거에서 유아들이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을 구분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26개월된 유아들은 어떤 준거에서도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을 구분하지 못하였지만 34개월된 유아들은 일반성의 준거에서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였고 42개월된 유아들은 더 많은 준거 즉 일반성, 권위의존성, 규칙의존성과 심각성에서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초보적인 구분이 약 3세 정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나이가 들면서 좀 더 많은 준거들에서 폭넓게 적용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학령전기 유아들이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 즉 질문을 이해하는 언어능력과 유아교육기관에 재학한 정도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질문을 잘 이해할 정도로 언어능력이 발달한 유아들이 그렇지 못한 유아들보다 더 일찍 두 종류의 규칙을 구별할 수 있었고 (Smetana & Braeges, 1990), 유아교육기관에 18개월 이상 재학한 유아들이 입학한지 얼마 안된 유아들보다 두 종류의 규칙을 더 잘 구분하였다 (Siegel & Storey, 1985;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은 Crane & Tisak, 1995을 참고하라).

한국 유아들도 일부 준거에서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였다. 위에서 소개한 Song 등의 연구 (1987)에서 한국의 5세 유아들은 허용성을 제외한 일반성과 규칙의존성에서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을 잘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아주 대조적인 결과도 있다. 오 영화와 박 영신 (1998)의 연구에서는 3세, 4세와 5세 유아들에게 권위의 합법성, 권위의존성, 위반행동에 대한 평가와 위반행동의 심각성의 네 준거에서 도덕적 규칙과 두 종류의 사회관습적 규칙 즉 가정의 규칙과 유치원의 규칙에 대해 평가하게 하였다. 모든 연령의 유아들이 네 준거 모두에서 세 종류의 규칙에 대해 동일한 반응을 보였고 단지 위반행동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에서 5세 유아들이 3세나 4세 유아들보다 위반행동을 더 나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유아들이 어떤 준거에서도 세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국의 학령전기 유아들이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의 차이를 이해하는지를 다룬 연구는 아주 적었을 뿐 아니라 또 연구들간에서도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Smetana 등 (1990)은 미국 유아들이 약 3세 경부터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5세 이하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험 1

실험 1은 우리나라 학령전기 유아들을 대상으로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밝힐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준거판단 가운데에서 위반행동의 허용성, 심각성, 일반성과 규칙의존성의 네가지 준거를 선택하였다. 이 준거들을 사용한 이유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이 준거들이 사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특히 유아들이 두 종류의 규칙을 이 준거들에서 구분하고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방법

피험자. 이 연구에는 대전 서구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에 재학중인 만 3세아 24명과 만 5세아 24명 총 48명의 유아들이 참여하였다. 3세아들의 평균 연령은 3년 10개월이었고 5세아들의 평균 연령은 5년 8개월이었다. 각 연령에서 남녀 유아들의 수는 각각 12명으로 동일하였다.

자료. 도덕적 규칙의 위반행동에 대한 이야기 네 개와 사회관습적 규칙의 위반행동에 대한 이야기 네 개 총 여덟 개의 이야기가 사용되었다. 도덕적 규칙의 위반행동은 ‘친구에게 물뿌리기’, ‘친구의 머리카락 당기기’, ‘혼자서만 그네타기’, ‘친구의 모자훔치기’로 네가지였고 사회관습적 규칙의 위반행동은 ‘책상 위에 올라가기’, ‘선생님에게 인사하지 않기’, ‘이야기 시간에 돌아다니기’, ‘손으로 밥먹기’의 네가지였다. 이 이야기들은 다른 선행연구들 특히 Song 등의 연구(1987)와 Smetana 등의 연구(1990)를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반수의 도덕적 이야기와 반수의 사회관습적 이야기에서는 남아였고 나머지 이야기에서는 여아였다. 여덟 개의 이야기가 제시되는 순서는 도덕적 위반행동과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을 교대로 하였고 각 규칙내에서 이야기의 순서는 무선으로 결정하였다. 모든 유아들은 같은 순서로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 내용에 대한 유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이야기의 내용을 30cm×21cm 크기의 도화지에 색깔로 그려코팅한 후 이야기를 할 때 보여주었다.

절차. 실험은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며 유치원 교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두명의 여자 대학원생들에 의해 실시되었다. 실험자들은 유아들을 맞이하여 이름을 묻고 레포를 형성한 후 그림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각 이야기를 들려주고 표 1에 제시된 순서대로 네가지의 질문을 하였다.

표1. 실험 1에 사용된 질문들의 예

판단 준거	질문내용
허용성	이 아이는 손으로 밥을 먹어요. 그러면 될까 안될까?
심각성	손으로 밥 먹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나빠요? 조금 나빠요, 많이 나빠요, 많이 많이 나빠요?
일반성	다른 유치원 아이들은 손으로 밥을 먹으면 될까 안될까?
규칙 의존성	선생님이 손으로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신 적은 없어. 그래도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 나쁘니?

첫째 질문에서는 규칙의 위반에 대한 허용여부를 물었다. 즉 도덕적 또는 사회관습적 규칙을 위반한 행동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물었다. 둘째 질문에서는 이야기에 나온 규칙 위반행동이 얼마나 나쁜지를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원을 사용하여 평가하게 하였다. 먼저 규칙을 위반한 행동이 좋은지 나쁜지를 묻고, 나쁘다고 답하면 크기가 다른 세 개의 붉은 색 원을 작은 것부터 크기 순서대로 놓은 후 원을 하나씩 지적하면서 ‘조금 나쁘니?’, ‘많이 나쁘니?’, ‘많이 많이 나쁘니?’ 라고 질문하고 유아들에게 하나의 원을 선택하게 하였다. 세 번째 질문은 규칙의 일반성에 대한 질문으로 위반행동이 다른 상황에서 일어나서 되는지

를 물었다. 마지막 질문은 규칙의존성에 대한 것으로 도덕적 또는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을 금지하는 규칙이 없어도 위반행동이 나쁘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유아들이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은 채 습관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질문의 끝에 나오는 “되요? 안되요?” 나 “좋아요? 나빠요?”에서 단어들의 순서는 이야기에 따라 교대로 변화시켰다.

결과

질문에 대한 채점은 두 번째 질문을 제외한 모든 질문에서는 유아들이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경우에는 0점, 부정적인 대답을 한 경우에는 1점으로 채점하였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가장 작은 원을 선택한 경우는 1점, 중간 원을 선택한 경우는 2점, 그리고 가장 큰 원을 선택한 경우는 3점으로 채점하였다. 네 질문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괄호속)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각 질문에 대한 유아들의 평균 점수를 2 (연령)×2 (성)×2 (규칙의 종류)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령과 성은 피험자간 변인이었고 나머지 변인은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표2. 네 질문에 대한 유아들의 평균점수(표준편차)

	3 세		5 세	
	도덕적 규칙	사회적 규칙	도덕적 규칙	사회적 규칙
허용성	.99 (.05)	.99 (.05)	.99 (.05)	.99 (.05)
심각성	2.45 (.48)	2.36 (.57)	2.60 (.37)	2.28 (.55)
일반성	.99 (.05)	.98 (.07)	.99 (.05)	.99 (.05)
규칙의존성	.00 (.00)	.02 (.07)	.11 (.23)	.16 (.28)

㉠ 허용성 : 허용성에서는 가능한 최고 점수가 1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규칙을 위반한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허용하는 것이다. 연령이나 규칙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조건에서 점수가 .99로 1점에 가까웠다. 이는 3세와 5세 유아들 모두가 도덕적 위반행동과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보며 그 정도는 규칙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 심각성 : 심각성에서 가능한 최고 점수 3점에 비교해 볼 때 유아들은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의 위반이 상당히 나쁘다고 보는 편이었다. 변량분석의 결과, 규칙의 종류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F(1,44)=10.57, p<.01$) 유아들은 도덕적 규칙의 위반이 사회관습적 규칙의 위반보다 더 나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에 따라 약간 달라져서 ($F(1,44)=3.59, p<.10$), 두 종류의 위반행동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가 3세아들보다 5세아들에서 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성의 주효과도 유의하여 ($F(1,44)=4.73, p<.05$) 남아들의 평균점수가 2.41로 여아들의 평균점수 2.65보다 더 낮아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규칙을 어긴 행동을 더 나쁘게 평가하고 있었다.

㉢ 일반성 : 일반성에서 가능한 최고점수는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위반행동이 다른 상황에서도 일어나서 안된다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허용성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처럼 일반성에 대한 유아들의 점수도 아주 높아서 연령과 규칙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조건에서 .99였다. 이는 유아들이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이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 정도는 규칙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 규칙의존성 : 규칙의존성에서 가능한 최고점수는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떤 행동이 규칙의 통제를 더 받는다고 봄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어떤 행동이 규칙으로부터 더 독립적이라고 봄을 의미한다. 만점 1점과 비교하여 볼 때 규칙의존성에 대한 점수는 아주 낮아서 유아들은 도덕적 위반행동이나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이 모

두 그런 행동을 금지하는 규칙이 없어도 나쁘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연령에 따라 달라져서 ($F(1,44)=6.63, p<.01$) 5세보다 3세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규칙의 종류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규칙의 종류는 유아들의 성과 이원상호작용을 보였을 뿐 아니라 ($F(1,44)=7.05, p<.05$) 유아들의 성과 연령과 삼원상호작용을 보였다 ($F(1,44)=7.05, p<.05$). 이 상호작용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 성과 규칙의 종류에 따른 유아들의 평균점수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를 살펴보면, 우선 3세에는 도덕적 행동과 사회관습적 행동의 규칙의존성에 대한 남아나 여아들의 점수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5세 남아들은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이 도덕적 위반행동보다 더 규칙에 의존한다고 보고 있었지만 도덕적 위반행동과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에 대한 여아들의 평균점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 3. 규칙의 종류, 연령과 성에 따른 규칙의존성에 대한 유아들의 평균점수 (표준편차)

	3 세		5 세	
	남	여	남	여
도덕적	.00 (.00)	.00 (.00)	.12 (.25)	.10 (.23)
사회관습적	.02 (.07)	.02 (.07)	.27 (.34)	.06 (.04)

㉠ 이야기 내용의 효과 : 이야기의 내용에 따라 네가지 준거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덕적 위반행동을 다룬 이야기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을 2 (연령)×2 (성)×4 (이야기)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으로 분석하였고,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을 다룬 이야기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덕적 위반행동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은 이야기의 내용에 따라 어떤 준거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관습적 규칙의 일반성 ($F(3,132)=3.00, p<.05$)과 규칙의존성($F(3,132)=4.99, p<.01$)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은 이야기의

내용에 따라 달라져서 일반성에 대한 유아들의 평균점수는 '선생님에게 인사 안하기'에서 .94로 '책상 위에 올라가기', '이야기 시간에 돌아다니기', '손으로 밥먹기'에 대한 평균점수 1.00보다 약간 떨어졌다. 규칙의존성에 대한 평균점수는 '선생님에게 인사 안하기'에서 .19로 '책상 위에 올라가기'와 '이야기 시간에 돌아다니기'의 평균점수 .06과 '손으로 밥먹기'의 평균점수 .04보다 약간 높았다. 즉 유아들은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은 다른 상황에서도 일어나서 안될 뿐 아니라 그런 행동을 금지하는 법이 없더라도 나쁘다고 보았지만 그런 경향이 '선생님에게 인사 안하기'에서는 약간 떨어졌다.

논 의

실험 1에서는 우리나라 유아들이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을 이해하는 능력의 발달을 규칙 위반 행동의 허용성, 심각성, 일반성과 규칙의존성의 네 준거에서 평가하였다. 도덕적 위반행동과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의 허용성과 일반성에 대한 3세와 5세 유아들의 반응은 비슷하여서 유아들은 두 종류의 위반행동을 모두 해서는 안되며 또 다른 상황에서도 이런 행동이 일어나서 안된다는 견해를 보여서 이 두 준거에서는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규칙의존성에 대한 판단에서도 유아들은 도덕적 위반행동이나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을 금지하는 규칙이 없어도 나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5세보다는 3세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5세 남아들은 도덕적 위반행동보다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이 더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아서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였다. 위반행동의 심각성에 대한 3세와 5세 유아들의 평가는 규칙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서 유아들은 도덕적 규칙의 위반이 사회관습적 규칙의 위반보다 더 나쁘다고 판단했으며 이런 경향은 3세보다 5세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3세와 5세 유아들은 모두 위반행동의 심각성의 준거에서는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였고, 5세 남아들은 규칙의존성에서도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유아들은 나머지 준거에서는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는 한국의 5세 유아들을 연구한 Song 등의 결과와(1987) 차이가 난다. 허용성에서는 Song 등의 연구처럼 유아들이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해 유사한 반응을 보였으나 일반성과 규칙의존성에서는 Song 등의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은 두 종류의 규칙을 잘 구분한 반면, 이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은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는 또한 미국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도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34개월된 유아들은 일반성과 허용성의 두 차원에서, 또 42개월된 유아들은 더 다양한 준거 즉 일반성, 권의존성, 규칙의존성과 심각성에서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을 구분할 수 있었다(Smetana & Brages, 1990). 그러나 이들 보다 나이가 더 많은 이 연구에 참여한 한국 유아들은 심각성의 준거에서 밖에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지 못했다.

이 결과들은 두 종류의 규칙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미국 유아들보다 우리나라 유아들에서 더 늦게 발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적절한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Smetana 등의 연구(1990)에 의하면, 위반행동의 심각성의 준거는 다른 준거들 보다 더 늦게 발달하는 준거로 미국의 유아들은 이 준거에서 두 종류의 규칙을 가장 늦게 구분하였다. 그러나 3세와 5세 한국 유아들은 위반행동의 심각성의 준거에서는 모두가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을 구분하였다. 이는 한국의 유아들도 일찍부터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고 있지만 실험 상황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 때문에 실험 1에서는 유아들의 이러한 능력이 충분히 표현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험 2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유아들이 실험에서 사용되는 질문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언어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학령전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영역의 연구들에서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예; Markman & Seibert, 1976). 유아들은 해당하는 인지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 과제에서 자신들의 인지능력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Smetana 등은(1990)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유아들의 이해와 질문을 이해하는 언어능력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유아들에게 위반행동의 허용성, 심각성, 일반성, 규칙과 권위의존성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각 질문과 구조나 복잡성이 동일한 언어이해 문제를 제시했다. 일반성, 규칙과 권위의존성 질문에 상응하는 언어이해 문제에 정확하게 반응한 유아들이 그렇지 못한 유아들보다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을 더 일찍 구분하였다. 이는 유아들이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을 구분하는 데 질문을 이해하는 언어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실험 2는 위의 결과를 기초로 실험 1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유아들의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정도를 재평가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실험 1에서 사용된 질문들 가운데 유아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일반성과 규칙의존성에 대한 질문을 검토하였다. 실험 1에서는 위반행동의 일반성에 대한 질문은 “다른 유치원 아이들은 손으로 밥을 먹으면 될까 안될까?” 였다. 유아들은 이 질문을 그런 행동이 다른 상황에서 일어나도 되는지를 묻는 일반성에 대한 질문으로 보다는 실제 다른 유치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받

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험 2에서는 유아들에게 일반성에 대한 질문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 사는 아이들은 손으로 밥을 먹으면 될까 안될까?”로 수정하였다.

규칙의 의존성에 대한 질문은 “선생님이 손으로 밥을 먹어서는 안된다고 하신 적이 없어. 그래도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 나쁘니?”였다. 이 질문에서는 유아들이 규칙이란 단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칙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질문의 앞부분에 선생님이 특정한 행동을 금지한 적이 없다는 말로 규칙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실험 2에서는 규칙이란 단어 대신에 유아교육기관에서 많이 사용하여 유아들이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규칙이 없음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규칙의존성에 대한 질문을 “손으로 밥을 먹으면 안된다는 약속은 없어. 그래도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 나쁘니?”로 수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유아들의 능력이 실험 1에서 사용되지 않은 준거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험 2에서는 실험 1에 포함되지 않은 준거판단을 하나 더 첨가하였다. Smetana 등의 연구 (1990)에 의하면, 규칙의존성의 준거보다 권위의존성의 준거에서 유아들이 두 종류의 규칙을 먼저 구별하였다. 행동을 금지하는 규칙의 존재보다는 행동을 금지하는 권위자의 존재가 유아들에게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므로 우리나라 유아들이 권위의존성의 준거에서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할지 모른다. 그리고 실험 1에서 발견된 심각성의 준거에 대한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해 위반행동의 심각성에 대한 질문을 그대로 포함시켰다.

방법

피험자. 실험 2에는 대전의 서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아 24명과 만 5세아 24명 총 48명이 참여하였다. 3세 유아들의

평균 연령은 3년 11개월이었고 5세 유아들의 평균 연령은 5년 9개월이었다. 실험 1과 마찬가지로 각 연령에서 남녀 유아들의 수는 각각 12명으로 동일하였다.

자료. 실험 1에서 사용된 8개의 이야기와 그림들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절차. 실험은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 여학생 2명에 의해 실시되었다. 유아들에게 여덟 개의 이야기를 실험 1과 같은 순서로 들려준 뒤, 위반행동의 심각성, 권위의존성, 규칙의존성과 일반성의 준거에서 위반행동을 판단하게 하였다. 모든 실험절차는 실험 1과 동일하였으나 권위의존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권위자가 그림 속의 위반행동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선생님을 나타내는 10cm 정도의 인형이 그림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실험 2에 사용된 질문의 예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실험 2에 사용된 질문들의 예

판단 준거	질문내용
심각성	이 아이는 손으로 밥 먹고 있어요. 손으로 밥먹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나빠요? 조금 나빠요, 많이 나빠요, 많이 많이 나빠요?
권위 의존성	선생님은 이 아이가 손으로 밥 먹는 것을 못 보았어. 그래도 손으로 밥 먹는 것이 나쁘니?
규칙 의존성	손으로 밥을 먹으면 안된다는 약속은 없어. 그래도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 나쁘니?
일반성	다른 나라에 사는 아이들은 손으로 밥을 먹으면 될까 안될까?

결과

각 질문에 대한 채점은 실험 1과 같이 하였다. 네 질문에 대한 유아들 반응의 평균 점수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각 질문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을 실험 1의 자료와 같이 2 (연령)×2 (성)×

2 (규칙의 종류)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으로 분석하였다.

① 심각성 :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심각성에 대한 유아들의 점수가 상당히 높아 유아들은 두 종류의 규칙의 위반이 상당히 나쁘다고 보고 있었다. 변량분석의 결과, 규칙의 종류의 주효과가 유의하여($F(1,43)=6.3, p<.05$) 유아들은 도덕적 규칙의 위반을 사회관습적 규칙의 위반보다 더 나쁘게 보고 있었으나 이러한 경향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이 결과는 실험 1과 동일하나 연령의 효과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실험 1에서는 심각성의 준거에서 3세아들보다는 5세아들이 두 종류의 규칙을 더 잘 구분하였으나 실험 2에서는 이런 연령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② 권위의존성 : 권위의존성에 대한 가능한 최고 점수는 1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반행동이 권위에 의존한다고 보는 것이고 낮을수록 위반행동이 권위와 독립적이라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질문에 대한 유아들의 점수는 아주 낮은 편으로 대부분의 유아들은 위반행동이 권위와 독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권위자가 위반행동을 알지 못한다 해도 위반행동이 나쁘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고 이런 경향은 유아들의 연령과 규칙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권위의존성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은 성에 따라 달라져서 ($F(1,44)=5.92, p<.05$) 여아들의 평균점수가 .13으로 남아들의 평균점수 .03보다 높아서 여아들보다 남아들이 위반행동이 더 권위와 독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③ 규칙의존성 : 권위의존성에 대한 반응과 마찬가지로 규칙의존성에 대한 유아들의 점수도 아주 낮아서 대부분의 유아들은 위반행동을 금지하는 규칙이 없어도 위반행동이 나쁘다고 보았고 이러한 경향은 유아들의 연령이나 규칙의 종류에 따

표 5. 네 질문에 대한 유아들의 평균점수(표준편차)

	3 세		5 세	
	도덕적 규칙	사회적 규칙	도덕적 규칙	사회적 규칙
심각성	2.40 (.66)	2.26 (.76)	2.60(.45)	2.44(.51)
권위의존성	.09 (.23)	.14 (.23)	.05(.13)	.03(.11)
규칙의존성	.10 (.22)	.10 (.23)	.05(.13)	.07(.17)
일반성	1.00 (.00)	.95 (.10)	.98(.07)	.97(.11)

라 달라지지 않았다. 즉 실험 1에서 발견된 것처럼 유아들은 모든 종류의 위반행동이 규칙과 독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④ 일반성 : 일반성에 대한 가능한 최고점수 1점과 비교해 볼 때 유아들의 점수는 높은 편으로 유아들은 도덕적 위반행동이나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일어나서 안된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으나 이러한 경향은 규칙의 종류에 따라 달라졌다($F(1,44)=5.08, p<.05$). 즉 실험 1에서 발견된 것과 다르게 유아들은 사회관습적 위반행동보다 도덕적 위반행동이 더 다른 상황에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보아서 이 준거에서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⑤ 이야기 내용의 효과 : 도덕적 위반행동과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에 대한 유아들의 판단이 이야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종류의 위반행동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을 2 (연령)×2 (성)×4 (이야기)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도덕적 위반행동에서는 권위의존성에서만 이야기 내용의 효과 ($F(3,132)=4.52, p<.01$)가 있어서 '친구에게 물뿌리기', '친구 머리당기기', '친구 모자훔치기'의 평균점수가 각각 .10, .06, .04로 '혼자 그네타기'의 평균점수 .23보다 낮아서 다른 행동보다는 '혼자 그네타기'에 대해 유아들이 더 권위의존적인 반응을 보였다. 즉 유아들은 다른 행동보다는 '혼자 그네타기'는 선생님이 모르면 덜 나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

었다.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에서는 일반성에서 이야기 내용의 효과가 유의수준에 미쳐 ($F(3,132) = 2.49, p < .10$) '책상에 올라가기', '이야기시간에 돌아다니기', '손으로 밥먹기'의 평균점수가 각각 1.00, .98, .98로 '선생님에게 인사 안하기'의 평균점수 .90보다 약간 높았다. 즉 유아들은 '선생님에게 인사 안하기'는 다른 행동들보다 상황에 따라 더 상대적인 것으로 보고 있었다.

논 의

실험 2에서는 유아들이 질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실험 1에서 사용된 질문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권위의존성의 준거를 하나 더 첨가하여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한 유아들의 이해를 위반행동의 심각성, 권위의존성, 규칙의존성과 일반성의 네 준거에서 다시 평가하였다. 유아들은 도덕적 위반행동을 사회관습적 위반행동보다 더 나쁘게 보아서 심각성의 준거에서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여 실험 1의 결과를 replicate 하였다. 또한 질문을 수정한 일반성의 준거에서도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여 도덕적 위반행동과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일어나서 안된다고 보았지만 실험 1과는 달리 그 경향이 도덕적 위반행동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미국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Smetana, 1981; Smetana & Brages, 1990; Smetana, Schagman, & Adams, 1993).

그러나 실험 2에서 규칙의존성에 대한 질문을 규칙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수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1에서 발견된 것처럼 유아들은 규칙의존성의 준거에서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또한 실험 2에서 새로 사용된 권위의존성의 준거에서도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유아들이 도덕적 규칙이 사회관습적 규칙보다 더 권위와 독립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는 사실

을 발견한 Smetana 등의 결과와 (1990; 1993) 일치하지 않는다.

전체 논의

두 실험에서 우리나라 만 3세와 5세 유아들이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의 차이를 이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덕적 위반행동과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후 허용성, 심각성, 일반성, 규칙의존성, 권위의존성의 다섯 가지 준거에서 각 위반행동을 평가하게 하였다. 우리나라 3세와 5세 유아들은 위반행동의 심각성과 일반성의 두 준거에서는 두 종류의 규칙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었고 5세 남아들이 규칙의존성에서 두 종류의 규칙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보였으나 다른 준거들에서는 이러한 이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유아들은 미국 유아들이 두 종류의 규칙을 가장 먼저 구분하는 일반성과 가장 늦게 구분하는 심각성의 두 준거에서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였으나 일반성보다 늦게 나타나나 심각성보다는 일찍 나타나는 규칙의존성과 권위의존성에서는 두 규칙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이는 실험 2에서 유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질문을 수정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아들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다른 가능성은 유아들이 이야기의 모든 요소들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성이나 심각성에 대한 질문과는 달리 규칙과 권위의존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선생님이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 나쁘다고 하신 적은 없어. 그래도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이 나쁘니?"에서처럼 위반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조건이 먼저 제시되고 난 다음 위반행동에 대해 질문한다. 따라서 이 질문에서 올바른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유아들은 이 조건을 이해하고 그 조건을 고려하여 위반행동을 평가해야 하는데 유아들은 조건에

해당하는 진술은 무시한 채 그 다음에 제시되는 위반행동에 대해서만 답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유아들이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의 차이를 이해하는지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이 두 준거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이 다시 확인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 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다른 준거들에서 유아들이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는지도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준거판단에 대한 이야기 내용의 효과이다. 유아들이 사회관습적 위반행동 가운데 '선생님에게 인사 안하기'는 다른 사회관습적 위반행동과 다르게 보았다. 즉 유아들은 '어른에게 인사 안하기'는 다른 위반행동보다 다른 상황에서 더 일어날 수 있고 또 규칙이 없다면 덜 나쁘다고 보았다. 이는 아동들이 '어른에게 인사 안하기'가 다른 위반행동보다 다른 상황에서 더 일어나서 안되고 또 규칙이 없어도 더 나쁘게 본다는 사실을 밝힌 Song 등(1987)의 결과와는 전혀 반대였다. 이러한 차이는 1980년대의 아동들은 '어른에게 인사하기'가 사회관습적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덕적 규칙인 것처럼 본데 반해, 1990년대의 유아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요즈음에는 과거에 비해 유아들의 삶에서 부모, 교사, 다른 어른들의 권위가 그만큼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판단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유아들의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Siegel & Storey, 1985; Smetana, 1981; Smetana & Brages, 199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서 심각성에서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위반행동을 더 나쁘게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권위의존성에서는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위반행동을 더 권위의존적으로 보았다. 이는 학령전기부터 우리나라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규칙에 대해 더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점은 심각성을 제외한 네가지 준거에서 우리나라 유아들의 점수가 미국 유아들의 점수보다 더 극단적이며 동질적이라는 점이다. 미국 유아들의 자료와(예; Smetana 등, 1990) 비교해 볼 때 각 조건별 평균 점수가 만점 또는 0점에 더 가깝고 각 조건별 표준편차가 더 작았다.¹⁾ 이런 경향은 유아들이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지 못하는 허용성, 규칙과 권위의존성의 준거에서 뿐 아니라 유아들이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는 일반성의 준거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오 영희와 박 영신(1998)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우리나라 유아들은 도덕적 행동이던지 사회관습적 행동이던지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미국 유아들보다 극단적인 쪽으로 서로 비슷하게 판단하였다. 또한 규칙과 권위의존성의 준거에서는 도덕적 또는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이 규칙이나 권위의존성에 관계없이 모두 나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유아들이 사회관습적 규칙을 마치 도덕적 규칙처럼 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런 경향은 우리 가정이나 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을 지도하는 방식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우리 가정이나 교육기관에서는 유아들에게 규칙의 배경이나 그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들을 이해시키거나 설명하기 보다는 무조건 규칙이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과정에서 유아들은 어떤 규칙이던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으로 개념화하므로 사회관습적 규칙이 사회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임의로 만들어져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1) Smetana 등의 연구(1990)와 본 연구에 나타난 준거별 유아들의 점수와 표준편차(괄호속)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준거	Smetana 등	본 연구
허용성	.64-.87 (.19-.37)	.99 (.05)
권위의존성	.16-.28 (.20-.30)	.03-.14 (.11-.23)
규칙의존성	.16-.26 (.20-.36)	.00-.16 (.00-.28)
일반성	.62-.81 (.31-.40)	.95-1.00 (.00-.07)

있다는 성질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과연 우리나라 유아들이 사회관습적 규칙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 우리 가정과 특히 유아교육기관에서 규칙에 대한 지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러한 지도가 유아들이 사회관습적 규칙을 개념화하는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오 영희와 박 영신 (1998). 도덕적 규칙과 가정과 유치원에서의 규칙에 대한 유아들의 판단. *백재대학교 인문논총*, 13, 175-190.
- Arsenio, W.F., & Ford, M.E. (1985). The role of affective information in social-cognitive development: Children's differentiation of moral and conventional events. *Merrill-Palmer Quarterly*, 31, 1-17.
- Crane, D.A., & Tisak, M.S. (1995). Does day-care experience affect young children's judgments of home and school rule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6, 25-37.
- Markman, E.M., & Seibert, K.J. (1976). Classes and collections: Internal organization and resulting holistic properties. *Cognitive Psychology*, 8, 561-577.
- Nucci, L.P. (1981). Conceptions of personal issues: A domain distinct from moral or societal concepts. *Child Development*, 52, 114-121.
- Nucci, L.P., Turiel, E., & Encarnacion-Gawrych, G. (1983). Children's social interactions and social concep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4, 469-487.
- Sanderson, J.A., & Siegal, S. (1988). Conceptions of moral and social rules in rejected and nonrejected preschooler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7, 66-72.
- Siegal M., & Storey, R.M. (1985). Day care and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social rules. *Child Development*, 56, 1001-1008.
- Smetana, J.G. (1981). Preschool children's conception of moral and social rules. *Child Development*, 52, 1333-1336.
- Smetana, J.G., & Braeges, J.L. (1990). The development of toddlers' moral and conventional judgements. *Child Development*, 36, 329-346.
- Smetana, J., Kelly, K., & Twentyman, C.T. (1984). Abused, neglected, and nonmaltreated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social-conventional transgressions. *Child Development*, 55, 277-287.
- Smetana, J.G., Schagman, N., & Adams, P.W. (1993). Preschool children's judgments about hypothetical and actual transgression. *Child Development*, 64, 202-214.
- Smetana, J.G., Toth, S.L., Cicchetti, D., Bruce, J., Kane, P., Daddis, C. (1999).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preschoolers' conceptions of hypothetical and actual moral trans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 269-281.
- Song, M., Smetana, J.G., & Kim, S. (1987). Korean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577-582.
- Tisak, M.S. (1993). Preschool children's judgements of moral and personal events involving physical harm and property damage. *Merrill-Palmer Quarterly*, 39, 375-390.
- Tisak, M.S., & Turiel, E. (1984).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prudential rules. *Child Development*, 55, 1030-109.
- Tisak, M.S., & Turiel, E. (1988). Variation in seriousness of transgression and children's moral and conventional concepts. *Developmental Psychology*, 3, 352-357.
-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evelopment of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moral and social-conventional rules

Young-shin Park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aichai University

Development of preschool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ral and social-conventional rules was examined in two experiments. In Experiment 1, stories depicting familiar moral and social-conventional transgressions were presented. Preschoolers were asked to judge permissibility, seriousness, generalizability and rule-contingency of the transgressions. 3- and 5-year-olds distinguished moral and social-conventional rules only on the criterion of seriousness: They judged moral transgressions to be worse than social-conventional ones. In Experiment 2, preschoolers were asked to judge seriousness, authority-contingency, rule-contingency, and generalizability of the same transgressions presented in Experiment 1. Questions for criterion judgements were modified to be more understandable to the subjects. 3- and 5-year-olds distinguished moral and social-conventional rules only on the criteria of seriousness and generalizability: They judged moral transgressions to be worse and to be more generalizably wrong than social-conventional ones.